

한국 현대음악의 현장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시향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 희 경

1. 글머리에
2. 진은숙 - 서울시향 - 현대음악의 결합
3. 주목할 만한 특징들
 - (1) 프로그램의 완성도
 - (2)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
 - (3) 소통의 여러 장치들
 - (4) 창작, 연주, 비평의 선순환 환경
4.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의 의미
5. 나가며

개 요

한국 음악학계에는 실제 음악 현장에서 벌어지는 활동이나 현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별로 없다. 서양 음악 도입 이후 한국에 정착된 근대적인 음악 제도들에 대한 연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 연구들이 반드시 출발점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와의 연관, 미래의 변화를 유추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음악회’는 음악적 행위가 수행되는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이며, 그에 대한 연구는 한국 음악문화의 현재를 읽어내는 흥미로운 텍스트가 될 수 있다.

2006년 4월부터 현재까지 6년간 총 23회에 걸쳐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에 의해 진행된 현대음악 연주회 시리즈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주제나 구성, 연주 면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며,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한 여러 교육 방식을 통해 신예 작곡가를 길러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갈 뿐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현대음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논문은 한국 음악문화에 대한 현장 연구의 하나로서, 서울시향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음악회 시리즈가 지난 6년간 이뤄온 성과를 정리해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음악계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한 비평적 연구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려 한다.

주제어: 음악회 연구, 현대음악, 진은숙, 서울시향, 한국 작곡가

1. 글머리에

음악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다. 악보로 전해지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리 울림으로써 비로소 생성되는 존재다. 문화학과 퍼포먼스 연구가 대두되면서 음악학에서도 기존의 정전 중심, 작곡가와 작품 연구에서 나아가 수행적 행위로 음악을 이해하거나 공간적, 문화적 맥락에서 음악 현상에 접근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 상황은 이러한 접근 방법들이 부분적으로 소개되기만 할 뿐, 음악계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 음악계의 여러 다양한 양상들 가운데 음악회 문화,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현대음악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해보려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양음악의 역사에서 음악회 제도는 19세기 들어서야 안정적으로 확립되었다. 궁정이나 살롱이 아닌 음악회장(concert hall)에서 누구나 표를 구입하면 관람할 수 있는 음악 공연 형태는 궁정문화에서 근대적인 시민문화로의 이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직업 오케스트라의 등장과 음악회장의 건립, 그러한 공간에 요구되는 음악 작품과 그에 적합한 청중 및 절대 음악 미학의 대두, 이 모든 것들이 음악회 제도와 맞물려 형성된 서양 근대 음악문화를 구성하는 인자들이다. 최근에는 19세기적인 음악회 문화가 21세기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변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¹⁾

서양음악의 도입 이후 국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음악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음악 연주 단체, 연주 공간, 청중들이 생겨났다. 현재

1) 이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의 책 참조. Martin Tröndle(ed.), *Das Konzert. Neue Aufführungskonzepte für eine klassische Form* (Bielefeld: transcript, 2009).

한국의 클래식 음악문화가 갖는 성격은 어쩌면 근대화 이후 정립된 이들 음악 제도들이 어떻게 국내에 정착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비로소 그 실체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국내 음악학의 열악한 환경과 음악학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직까지 기초 연구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해방 후 본격화된 한국의 음악회 문화는 KBS(국립)교향악단²⁾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양대 축으로, 1980년대에는 각 지역별로 교향악단들이 결성되어 활동을 했고,³⁾ 1990년대 이후에는 주목할 만한 여러 다양한 음악회들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하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교향악 축제”나 지역 오케스트라의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석사 학위 논문들만이 일부 있을 따름이다. 최근 들어 클래식 음악 공연을 문화콘텐츠로 접근하는 예술경영이나 예술행정 분야에서 마케팅과 기획 운영방안을 위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 방안, 관객 개발 같은 현장 연구에 관심을 두면서, 하우스 콘서트나 미술관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청소년 음악회 등을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⁴⁾ 그것이 전체 음악문화에서 갖는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이 다루려 하는 서울시향의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음악회 시리즈는 21세기 한국 음악계 전반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

2) KBS 교향악단은 1956년 서울방송교향악단으로 창단 연주회를 가진 후, 1969년 국립교향악단으로 운영되다가, 1981년 다시 KBS교향악단으로 재창단되었다.

3) 198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교향악단이 생겨났고, 민간 직업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도 1985년 창단되었다. 이소영·전지영, “음악,” 『한국현대예술사대계 V 1980년대』 (서울: 시공아트, 2005), 319-321 참조.

4)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석사학위 논문들로는 박소은, “외국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분석 연구 1945년~2008년,” 석사 학위 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09); 김정옥, “국내 하우스콘서트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0); 정구성, “공공 교향악단의 운영 개선 방향 - KBS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1) 등이 있다.

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이 음악회 시리즈의 탄생 배경과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 속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정리해내고, 그것이 한국 음악계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점검해보고자 한다.⁵⁾

2. 진은숙 - 서울시향 - 현대음악의 결합

2005년 6월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은 정명훈을 예술 감독으로 영입하고 단원 오디션을 거치며 새롭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정명훈의 제안으로 국내 최초 상임작곡가(composer in residence) 제도를 도입하여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던 진은숙을 불러왔다. 외국의 주요 관현악들에서는 상주(혹은 상임) 작곡가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유럽의 경우 대개 한 시즌 동안 특정 작곡가를 초빙해 그의 작품을 집중 연주하고 신작을 위촉한다면, 미국에서는 한 시즌이 아닌 5-10년 동안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예술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진은숙은 단순히 작품을 위촉받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대음악 연주회를 기획하고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를 여는 방식으로 서울시향 상임작곡가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2006년 1월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진은숙은 이렇게 말한다.

지난해 3월, 정명훈 선생님으로부터 상임작곡가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20년째 활동하다보니 한국에서 뭔가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거든

5) 이 현대음악 시리즈의 특징과 의미를 유럽 음악학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글이, 2011년 6월 독일에서 출간된 진은숙 평전에 포함되어 있다. Frank Harders-Wuthenow, "Ars Nova - à sa manière. UnsuK Chins bahnbrechende Konzertreihe beim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Stefan Drees (hrsg.), *Im Spiegel der Zeit. Die Komponisten UnsuK Chin* (Mainz: Schott, 2011), 205-214.

요. 상임작곡가로서 제 역할은 미국식에 가까워요. 연주 프로그램 구성, 젊은 작곡가를 위한 강의와 워크숍,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현대음악 소개도 학구적이고 어려운 독일 작품에 쏠린 국내 관행에서 벗어나 세계의 다양한 현대음악으로 넓히고, 한국 초연 또는 아시아 초연 작품과 고전·낭만음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을 생각입니다. 제 작품 연주보다는 한국 음악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⁶⁾

그리하여 2006년 4월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라는 이름의 현대음악 시리즈가 시작되었다. 첫 해 봄 시즌에만 한 프로그램이 두 차례(서울과 고양에서) 공연되었고, 가을 시즌부터는 관현악 연주회와 실내악 연주회의 두 프로그램이 열려 매년 4회 2011년 현재까지 6년간 총 23회의 음악회가 열렸다.

사실 서울시향은 1948년 창단(당시 이름은 서울교향악단) 후,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해군정훈음악대로 이관되었다가 1957년 재창단 되면서 한국 현대음악사의 산증인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⁷⁾ 레퍼토리 확장에 힘쓴 1960년대는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도 조금씩 연주되기 시작했고,⁸⁾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후에는 산하단

6) 오미환 기자,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 ‘작품보다 한국음악 발전에 매진’,” 『한국일보』 2006년 1월 9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601/h2006010918330375680.htm> 2011.10.15). 반면 진은숙의 2001/02 시즌 베를린의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2009/10 시즌 에센 필하모니의 상임작곡가 역할은 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7) 우리나라 교향악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략 1926년 ‘중앙악우회’의 창단을 그 출발로 보는 것 같다. 일제 강점기 여러 관현악단들이 등장했으나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고, 해방 직후 첫 교향악단인 고려교향악단에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강숙·김준미·민경찬, 『우리양악 100년』 (현암사, 2001), 163-167, 246-247 참조. 고려교향악단은 초창기 계정식, 임원식 등의 지휘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으나, 1946년 3월 총무 김생려의 탈퇴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1947년 해산되었고, 1948년 김생려를 중심으로 서울교향악단이 출범했다. 김생려 뿐 아니라 고려교향악단의 많은 단원들이 서울교향악단에 참여했기에, 서울시향은 고려교향악단을 모체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체로서 안정적인 연주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클래식, 국악, 재즈가 한데 어우러지는 “범세대 연주회” 등을 통해 클래식음악의 문턱을 낮추는 실험적인 음악회를 기획, 연주하며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여러 신생 관현악단들의 약진과 상임작곡가의 공백 등 대내외적으로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채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라는 역할에 머무르는 듯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우여곡절 끝에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서울시향이 정명훈을 맞아 최고 오케스트라로 거듭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상임작곡가 진은숙은 연주만이 아닌 새로운 창작의 중요성과 그로부터 출발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21세기 (현대)음악의 지형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작곡가로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음악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한국 음악계에 좀 더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면서 미래의 음악을 창조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 6년간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3회에 걸친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는 매번 주제가 있었고(아래 <표 1> 참조), 각 주제별로 지금까지 총 126곡의 작품들이 연주되었다. 조반니 가브리엘리와 비발디의 아리아 두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세기 이후 작품들이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오르가눔, 17세기 오르간 곡, 바흐, 슈베르트 음악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편곡한 작품들도 포함된다. 시기별로 보면, 20세기 전반(1900-1950년) 31곡, 1951-1970년 16곡, 1971-1990년 19곡, 1991-2000년 26곡, 2001-2011년 34곡으로 지난 20년간 나온 작품들이 비중 있게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중

8) 김성태, 김용진, 나운영, 백병동, 이상근, 정윤주 등의 교향곡이나 관현악곡이 이에 포함된다. 1957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시향의 연주곡목에 대해서는 박혜란, “국립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사,”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5) 참조.

8곡(모두 위촉곡이다)이 세계 초연, 51곡이 아시아 초연, 37곡이 아시아 초연 작품으로, 총 100여 곡이 국내에서 처음 연주된 작품들이었다.

<표 1> 음악회 주제

연도	회차	주 제
2006	I	백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
	II	옛 것과 새 것 (Early/New) - 현대음악과 떠나는 과거로의 여행
	III	색(色)다른 베토벤 * 영화 상영 <루트비히 반> * 베토벤의 방 전시회
2007	I	리게티 추모 콘서트
	II	- 리게티에게 영향을 준 작곡가들 / 리게티에게 영향 받은 작곡가들
	III	비올라, 비올라 - 현들의 향연 * 스트링그래피 (퍼포먼스)
	IV	
2008	I	이국의 색채 - 오케스트라가 빚어낸 눈부신 색채
	II	아메리카 - 대담하고 용감무쌍한 미국음악의 개척자
	III	메시앙 탄생 100주년 콘서트 - 올리비에 메시앙 그 전후를 아우르다 / 메시앙이라는 썸에서 발원한 음악들 * 위고 베를랜드 설치미술
	IV	
2009	I	옛 것과 새 것 * 영화상영 <라 스피리타타>
	II	음악이 빛을 발하다 -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판타지 세계
	III	SPO & IRCAM - 새로운 소리의 가능성을 탐색하다
	IV	
2010	I	동과 서 -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모험의 세계 / 현대음악 속 동양과 서양
	II	
	III	클래식, 민속의 색채를 품다
	IV	
2011	I	옛 것과 새 것
	II	디스커버리 - 찬란하고 화려한 테크닉의 향연
	III	동화
	IV	테마 없는 변주

* 부대 행사

소개된 작곡가들의 수는 총 74명으로, 가브리엘리와 비발디를 포함하여, 현대음악의 고전이라 할 20세기 초 작곡가들에서 1980년대 생 젊은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른다. 이 중 세 곡 이상 소개된

작곡가들로는 진은숙(9곡), 리게티(7곡), 메시앙, 불레즈, 유카 티엔수(각 4곡), 베베른(편곡 2곡 포함 5곡),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낸캐로우, 크리스 하먼, 브렛 딘, 올리버 너센, 요르크 휠러(각 3곡씩)이다. 작곡가들의 세대별 분포를 보면, 1980년대 생 2명, 1970년대 생 9명, 1960년대 생 8명, 1950년대 생 11명, 1930-40년대 10명, 1900-20년대 생 16명, 19세기 후반 생 작곡가 13명으로 20세기 전체에 두루 걸쳐있다.⁹⁾ 또한 이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유럽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스위스 11명, 독일/오스트리아 12명, 이탈리아 6명, 영국 3명), 여기에 스페인 1명, 북구 5명, 동구권과 러시아 8명을 합하면 유럽 작곡가들이 총 46명에 이르고, 북미 9명, 중남미 4명, 호주 1명, 그리고 아시아 출신 14명

9) 출생연도별 작곡가 목록

1980년대	김택수, 크리스토프 베르트랑
1970년대	크리스 폴 하먼, 마누엘 부르고스, 페르투 하파넬, 홍성지, 엔리코 차펠라, 박선영, 김희라, 다이후지쿠라, 루크 베드포드
1960년대	조지 벤자민, 브렛 딘, 진은숙, 요하네스 설호른, 이자벨 문드리, 정일련, 임종우, 최우정
1950년대	천치강, 올리버 너센, 볼프강 림, 한스 아브라함센, 이반 페델레,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하스, 존 조른, 로베르토 시에라, 베아트 푸러, 파스칼 뒤사팽, 마그누스 린드베리
1940년대	요르크 휠러, 존 애덤스, 트리스탕 뮌라이, 유카 티엔수
1930년대	마우리치오 카겔, 강석희, 해리슨 버트위슬, 알프레드 슈니트케, 피터 시켈레, 백병동
1920년대	야니스 크세나키스, 죄르지 리게티, 피에르 불레즈, 죄르지 쿠르탁, 벅시 줄라스, 칼하인츠 슈톡하우젠, 유아사조지,
1910년대	존 케이지, 콘론 낸캐로우, 비톨드 루토스와브스키, 윤이상, 베르트 알로이스 침머만
1900년대	조지 엔탈일, 자친토 쉘시, 올리비에 메시앙
19세기 후반	레오시 야나체크, 클로드 드뷔시, 알렉산더 스크랴빈, 찰스 아이브스, 모리스 라벨, 벨라 버르토크,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크,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베이너 라이티오, 헨리 코웰, 실베스트레 부엘타스
그 이전	조반니 가브리엘리, 니콜라스 드 그리니, 안토니오 비발디, 요한 세바스찬 바흐, 프란츠 슈베르트

등으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 작곡가들이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주 9)의 작곡가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현대음악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20세기 전반 작품들과 달리, 1940년대 이후 작곡가들의 출신 지역은 서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북구, 남미, 오세아니아 등 훨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음악회 시리즈와 함께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는 매 시즌 작곡 전공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하여 자신이 직접 강연하는 공개강좌, 초청 작곡가나 연주자들의 워크숍과 강연 같은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3. 주목할 만한 특징들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보다 프로그램 구성의 탁월함이다. 개별 프로그램은 마치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백 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로 묶인 첫 음악회의 구성을 보면, 현대음악의 ‘고전’이라 할 베베른의 <파사칼리아> op.1(1908)과 드뷔시의 <바다>(1903) 사이에, 진은숙의 <바이올린 협주곡>(2001)과 푸에르토리코 출신 작곡가 로베르토 시에라의 흥겨운 춤곡풍 <알레그리아>(1996)가, 그리고 이 두 곡 앞에 베베른이 편곡한 슈베르트의 <독일 무곡>(1931)이 배치되었다. ‘현대음악’ 하면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거운 무조 음악만을 떠올리는 한국 청중들에게 시적이고 감각적이며 정서적으로 감응할 수 있는 현대음악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인 것이다.

20세기 현대음악은 과거 음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많은 작곡가들이 과거 유산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는데, 두 번째 시즌의 주제 “옛 것과 새 것”(Early/New), “색(色)다른 베토벤”은 그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⁰⁾ 바흐/베베른의 <6성부 리체르카레>(1934-35)와 베베른의 <관현악을 위한 다섯 곡>(1911)으로 시작된 관현악 연주회는 단순히 옛 음악을 현대적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것 뿐 아니라, 그러한 옛 음악에 영향 받은 여러 작품들로 구성되었으며,¹¹⁾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1918)과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모음곡>(1922/1947)으로 전반, 후반부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20-21세기 베토벤 음악에 대한 오마주라 할 실내악 연주회에서는 P.D.Q. 바흐라는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내며 음악 코미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피터 시켈레의 <음악 감상의 새로운 지평 - 베토벤 5번 교향곡 스포츠 중계>(1970)가 개그맨 강성범의 재치 있는 말솜씨로 소개되었고, 호주 작곡가 브렛 딘의 <전원 교향곡>(2000)이 베토벤 시대와 달라진 현대 자연의 모습을 소음의 세계로 그려냈다. 그 밖에 베토벤을 소재로 한 여러 다른 작품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1970년 제작된 마우리치오 카겔의 유명한 영화 <루트비히 반>이 상연되었다. 또한 이 연주회에서는 공연장 주변 갤러리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꾸민 “베토벤의 방” 전시회가 열렸다.

10) 프랑크 하더스-부테노프는 아르스 노바의 2006년 가을 시즌 “색다른 베토벤” 음악회가, 베토벤 음악에 중점을 두었던 정명훈의 첫 시즌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Frank Harders-Wuthenow, “Ars Nova - à sa manière. Unsub Chins bahnbrechende Konzertreihe beim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208.

11) 조지 벤자민의 17세기 오르간 곡 편곡, 16세기 광기의 작곡가 제수알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브렛 딘의 <카를로>(1997), 14세기 지중해 섬 사이프러스에서 불리던 사랑 노래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진은숙의 <나는 사랑에 빠졌답니다>(원래 네명의 성악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간의 거울》(1999/2001)의 다섯 번째 곡) 등이 그것이다.

“옛 것과 새 것”이라는 주제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심지어 낭만시대 음악까지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 현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페로틴의 오르가눔에서 탄생한 올리버 너센의 <두 개의 오르가눔>(1994), 치코니아의 음악을 토대로 한 해리슨 버트위슬의 <비블레 ‘샘물 옆에서’>(2008), 바흐 <푸가의 기술>을 현대적인 어법과 사운드로 재탄생시킨 요하네스 설호른의 <왜곡된 이미지>(2001-04) 등은 옛 음악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공간 속으로 불러들여 마치 박물관에 보관되었던 유물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옮겨 온 듯했다. “옛 것과 새 것”을 주제로 했던 2009년, 2011년 두 음악회의 마지막 곡은 각각 슈니트케의 <콘체르토 그로소>(1976-77)와 <하이든 풍의 모츠-아트>(1977)였다.

그밖에도 “아르스 노바” 시리즈의 주제들은,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악기 비올라를 집중 조명한 “비올라 비올라”(2007년 가을),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대담한 색채의 음악을 선보인 “이국의 색채”(2008년 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판타지의 세계를 다룬 “음악이 빛을 발하다”(2009년 봄), 현대음악 속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한 “동과 서”(2010년 봄), 현대음악에서 스며든 민속음악의 영향을 천착한 “클래식, 민속의 색채를 품다”(2010년 가을), 유럽식 현대음악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자신만의 목소리를 보여준 용감무쌍한 미국 작곡가들 이야기 “아메리카”(2008년 봄), 그리고 세계 컴퓨터음악의 중심지인 이르캄 기술진과 공동 작업으로 새로운 소리의 가능성을 탐색한 “SPO & IRCAM”(2009년 가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다른 한편 죄르지 리게티 추모 콘서트(2007년 봄)와 올리비에 메시앙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2008년 가을)에서도 단순히 그 작곡가들의 작품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향을 주고받았던 선후배의 음악들을 한데 연결하여 그들이 20세기 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재조명했다. 이렇게 매 시즌 혹은 매 음악회마다 주제별로 작품들을 연관 짓고 특정한 맥락

속에 배치시킴으로써 작품들 간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또 다른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한다.¹²⁾ 지금까지 연주된 곡목들을 일별해보면, 20세기 현대음악이 어떤 흐름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구성과 곡목 선정에는 상임작곡가 진은숙이 생각하는 현대음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점이 드러난다.

언젠가 진은숙은 프로그램 하나를 짜는 것이 곡 하나 쓰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다. 그만큼 프로그램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일 터. 어느 연주회나 마찬가지로겠으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현대음악은 어떤 프레임 속에서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 수십, 수백 곡을 들으며 적절한 구성과 배치를 고민하는 것이다.¹³⁾ 이러한 열정적인 작업 과정이 있기에, 현대음악 연주회임에도 음악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선곡과 구성의 탁월함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실제 연주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연주의 완성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진은숙은 자신이 구성한 프로그램이 최고의 상태로 청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연주에 임하는 서울시향 단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낯설고 어려운 작품들일지라도 이들을 잘 이

12)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흥미로운 현대음악 연주회 프로그램임은 해외에서 먼저 주목했다. 2010년 9월 30일, 영국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현대음악 프로그램인 “오늘의 음악” 예술 감독으로 진은숙을 선임했는데, 여기에 아르스 노바 프로젝트의 성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한국의 현대음악 프로그램이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 ‘역수출’된 것이라 앞 다투어 보도했다.

13) 여기에 진은숙과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한 기획자 마리스 고토니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처럼 짜임새 있는 구성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끝 수 있도록 현대음악에 정통한 훌륭한 지휘자와 협연자 섭외에 공을 들인다. 사실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이 아닌 일반 오케스트라가 현대음악 연주회를 제대로 소화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베를린 필하모니처럼 클라우디오 아바도에 이어 사이먼 래틀 시대에도 여전히 현대음악 레퍼토리를 즐겨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교향악단의 연주회에서 말러 작품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¹⁴⁾ 이런 조건에서 현대음악의 고전은 물론이고 아시아 초연, 한국 초연되는 수많은 현대 작품들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진은숙은 자신의 음악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대음악에 정통한 경험 많고 숙련된 지휘자들 뿐 아니라 젊고 유능한 부상하는 지휘자들을 불러와 서울시향의 연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¹⁵⁾

지휘자 뿐 아니라 협연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시즌의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주제와 선곡은 물론이고 어떤 협연자가 최적일지를 생각하고, 이들이 협주곡 뿐 아니라 실내악 연주에도 참여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마련한다. 2007년 가을 “비올라 비올라”에서는 리처드 용재 오닐이 브렛 딘의 <비올라 협주곡>(2004)과 크리스 폴 하먼의 비올라 협주곡 <우타>(2000)를 들려주었고, 2008년 봄에는 알제리 출신 프랑스 피아니스트 빌렘 라추미아가 초청되어 진은숙의 <피아노 협주곡>(1996-97)과 미국 작곡가들의 실험적인 실내악곡들을 함께 연주했다.¹⁶⁾

14) 1999년 임현정이 이끌던 부친필하모니가 말러 전곡 연주에 도전한 것은 당시 주목할 사건이었고, 몇 년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2003년 전곡 연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15) 세 번이나 아르스 노바 음악회를 이끌었던 스테판 에즈버리와 파스칼 로페를 비롯하여, 튀디거 분, 프랑소아-자비에르 로트, 수산나 멜끼, 물란트 클루티히, 발두르 브리니만, 일란 볼코프 등이 지휘를 맡았다.

16) 존 케이지의 <크레도 인 유에스>(1942)와 <장난감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1948), 헨리 코렐의 <스트링 피아노를 위한 벤시>(1925), 콘론 낸캐로우의 <피아노를 위

진은숙의 협주곡들은 초연을 했던 이들—<바이올린 협주곡> (2001) 비비안네 하크너, <첼로 협주곡>(2006-8) 알반 게르하르트, <생황 협주곡 ‘슈’>(2009) 우웨이—이 내한하여, 그녀 작품 특유의 비로투오소함과 섬세한 색채감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했다. 또한 2009년 가을 마그누스 린드베리의 <클라리넷 협주곡>(2002)을 들려줬던 카리 크리쿠는 7년간 이 곡을 무려 40여 회 이상 연주했던 경력을 입증하듯 신들린 듯한 클라리넷 연주로 관객을 압도시켰다. 그밖에 대표적인 현대음악단체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에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강혜선도 두 차례 내한하여 리게티의 <바이올린 협주곡>(1992)과 진은숙의 독주 바이올린과 실시간 전자음향을 위한 <이중 구속?>(2006-07)을 연주했고, 유럽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소프라노 서예리도 2006년 가을 “옛 것과 새 것” 시리즈 무대에 올라 고음악과 현대음악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헝가리 메조소프라노 카탈린 카롤리는 2010년 가을 “클래식, 민속을 품다”에서 자신이 초연했던 리게티의 <피리, 북, 깡깡이로>(2000)와 베리오의 <민요>(1964/1973)를 연주했고, 메시앙 음악회에서는 국내 저명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7개의 하이카이>(1962)와 <새의 기상>(1953)을 한국 초연하기도 했다. 이들 협연자들은 매 시즌 “아르스 노바” 연주회에 고유한 색깔을 불어넣는 존재들이었고, 이들의 완성도 높은 연주는 현대음악에서 음악적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한 원천이었다.

(2)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

“아르스 노바” 시리즈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미래의 작곡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 시즌 이어지

한 전주곡>(1935)과 <탱고?>(1983), 조지 엔타일의 <재즈 교향곡>(1925/1955) 등이 그것이다.

고 있는 마스터클래스는 작곡에 뜻을 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경제적 부담 없이 세계적인 작곡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향의 상임작곡가를 제안받기 전부터 진은숙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왔다. 한국에서 작곡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작곡 기술의 측면만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전업 작곡가로 살며 깨우치고 터득한 작가로서의 태도와 정신을 젊은 친구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처음 마스터클래스 공지가 나간 후 선발된 23명의 학생들¹⁷⁾ 가운데 지금까지 꾸준히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도 적지 않으며, 이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신예 작곡가들도 있다.¹⁸⁾ 마스터클래스 첫 시즌을 끝내고 진은숙은 작곡가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작곡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작곡가가 되어가는 과정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며, 그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곧 작곡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이다.¹⁹⁾ 진은숙의 마스터클래스는 구체적인 작곡 기술상의 문제를 배워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작곡가로서의 자세, 작가 정신을 일깨우고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가도록 하는 멘토 역할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17) 첫 해에는 초등학교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원래 전국 소재 중등학교 이상,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네 명의 초등학교생이 오디션에 거쳐 선발되었다. 이들의 마스터클래스 참가후기는 서울시향 매거진과 이미경의 리뷰에 자료로 실려 있다. 『SPO』 7 (2006/7), 14-17; 이미경,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의 Ars Nova 1,” 『오늘의 작곡가 오늘의 작품』 5 (2006), 86-87.

18) 김택수, 박정규, 신동훈 등이 그 예라 하겠다.

19) 2006년 5월 3일 6-8시, 서울시향 5층 연습실에서 있었던 공개강좌의 발언 내용. 이미경의 리뷰에도 정리되어 있다. 이미경,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의 Ars Nova 1,” 88-89.

한편, 마스터클래스는 아르스 노바 연주를 위해 방한하는 외국 작곡가들과의 워크숍 형태로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2007년 봄 캐나다의 젊은 작곡가 크리스 폴 하먼, 2009년 가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작곡가 트리스탕 뒤라이, 2010년 봄 독일 작곡가 요하네스 쉴호른이 특강 혹은 워크숍의 형태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1 가을에는 프랑스 작곡가 파스칼 뒤사팽이 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작품에 대해 직접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²⁰⁾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기성 작곡가들과의 만남은 그들의 작품세계를 직접 접하고 그 문제의식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예 작곡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 코멘트를 들으며 또 다른 시각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마스터클래스 외에도 진은숙은 매 시즌 공개강좌를 열어 작곡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려 했다. 자신의 최근작 혹은 시즌에서 연주될 작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고, 시즌 주제와 관련하여 현대음악의 흐름을 소개하거나 주목할 만한 작곡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예컨대 2008년 가을에는 “아메리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콘론 난캐로우와 해리 파치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했고,²¹⁾ 2009년 봄에는 현대의 오케스트라곡이 어떤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어왔는지 설명했다. 또한 2010년 봄에는 중국 생황 연주자 우웨이의 특강과 연주를 마련하여 현대악기로서 생황이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접할 수 있게 했다. 공개강좌에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작곡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음악 및 악보가 항상 함께 제공되었다.

20) 이에 대한 기사로 장병욱 기자, “佛 작곡가 뒤사팽, 한국 음악계에 메시지 던지다.” 『한국일보』 2011년 10월 11일자 참조.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110/h2011101121513586330.htm>
(2011.10.15.)

21) 파치는 자신이 직접 악기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음악회 프로그램에는 포함될 수 없었다.

젊은 작곡가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의 하나가 자신이 쓴 음악을 실제 소리로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편성이 큰 곡을 쓸 때 학생들은 온전히 상상 속에서만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를 그려내 볼 뿐인데, 실제 악기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리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소리로 확인하며 음향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작업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들이 작곡한 악보를 실제 소리로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진은숙의 마스터클래스는 수년 전부터 이들 젊은 작곡가들에게 악보 리딩(reading)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전문 지휘자들이 내한하여 서울시향과 아르스 노바 프로그램을 리허설하는 시간을 쪼개 이들의 악보를 읽어주는데, 그 과정 자체도 이미 많은 공부가 되는 것이지만, 지휘자들 때로는 시향의 수석주자들에게서 음악적인 코멘트를 듣기도 한다. 작곡가들에게 이만큼 값진 공부가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차세대 작곡가 육성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그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진은숙은 지난 6년간 마스터클래스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젊은 작곡가들에게 처음으로 아르스 노바 연주를 위한 위촉곡을 맡기기 시작했다. 2011년 봄 시즌에 그 첫 타자로 김택수의 <게레레>가 세계초연 되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은 “아르스 노바가 한국의 젊은 작곡가에게 자극을 주고, 작곡가는 자신의 곡을 아르스 노바에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²²⁾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구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진은숙은 오래 전부터 이미 젊은 작곡가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곡을 위촉해왔다. 아르스 노바만이 아니라 서울시향의 다른 연주회에서도 이들의 곡이 초연될 수 있도록 힘을 신는다.

22) 백승찬 기자, “현대음악, 젊은 작곡가들이 만들어가야,” 『경향신문』 2011년 5월 2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22059375&code=900313 (2011.10.15.)

(3) 소통의 여러 장치들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매 시즌 제작되는 프로그램 해설 소책자이다. 서울시향의 다른 음악회에서는 프로그램 책자가 따로 마련되지 않는다. 자체 매거진인 월간 『SPO』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르스 노바 시리즈는 지금까지 줄곧 별도의 프로그램 책자를 만들어왔는데, 독자적인 스타일과 디자인도 눈길을 끌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음악회 해설과는 차별화된, 인문학적 배경과 음악적 통찰이 뛰어난 해설 덕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²³⁾ 현대음악 연주회에서 프로그램 해설의 중요성을 인식한 진은숙은 베를린 필하모니와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프로그램 해설자로 유명한 독일 음악학자 하바쿱 트라버에게 그 일을 맡겼다.

트라버는 음악회에서 연주될 곡들을 하나의 콘셉트로 묶어내고 그들 간의 흥미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어, 전체를 일관된 흐름 속에서 해석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필자다. 또한 그것을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 재위치 시켜 의미를 부여하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세계 초연작들도 악보만으로 그 음악적 의도를 읽어낸다. 지금까지 나온 23편의 글을 바로 책으로 묶어내도 훌륭한 현대음악 입문서가 될 정도로, 그의 프로그램 해설은 아직까지 국내 어느 필자도 담당할 수 없는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 물론 그가 유럽, 특히 독일에서 활동하는 필자이기 에, 그의 글에서 음악을 이해하는 어떤 문화적 간극을 느낄 때도 간혹

23) 음악칼럼니스트 정준호는 아르스 노바 시리즈의 첫 해를 평가하며, 질 높은 기획력과 연주, 특히 하바쿱 트라버의 해설이 훌륭했다고 지적했고, 월간 『객석』의 박용완 기자도 아르스 노바 첫 음악회의 리뷰에서 무엇보다 충실하고 흥미로우며 의미 있는 하바쿱의 해설에 주목했다. 정준호, “200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서울시향 공연 결산,” 『SPO』 12 (2006/12), 14-15; 박용완, “편식을 안해야 키가 자란다. 서울시향의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1,’” 『객석』(2006/6), 69.

있지만, 그 많은 현대 작품들을 음악적인 면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해석하여 음악회 해설을 쓰는 일은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또한 현대음악 콘서트가 지닌 낯설음과 거리를 줄여보고자 진은숙은 매회 음악회가 시작되기 40분 전 “프리콘서트토크”에 직접 나서 그날 있게 될 음악회에 대해 해설을 한다. 대개 음악회 해설은 프로그램 노트에 나오는 것을 반복하기 일쑤인데, 직접 기획과 선곡까지 담당하는 그녀의 해설은 그야말로 음악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감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관객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정성들여 요리를 한 후, 초대된 손님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 메뉴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해주는 매우 친절한 방식이다.

다른 한편 “아르스 노바” 시리즈에는 음악회 외에 시즌 주제와 관련된 부대 행사들도 있었다. 2006년 가을 “색(色)다른 베토벤”의 일환으로 금호아트홀 갤러리에서 열린 “베토벤의 방” 전시회는 모든 벽과 창문, 가구들이 온통 베토벤 악보로 도배된 일종의 설치미술 공간으로, 미술가 최인수가 작곡을 공부하는 어린이 16명과 함께 만들어 낸 것이었다. 이 공간에서 관객들은 악보로 뒤덮인 피아노를 자유롭게 쳐볼 수도 있고, 직접 들고 온 악기를 가지고 보이는 악보 무엇이랄도 연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 전시는 또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는 것이다. 한편 비올라를 위시한 현들의 향연이 주제였던 2007년 가을에는 일본의 현대 작곡가 미즈시마 카즈에가 1992년 창안한 “스트링그래피” 퍼포먼스가 서울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선보였다. 실의 양쪽 끝에 종이컵을 달아 대화하는 실 전화의 원리를 이용한 스트링그래피는 공간에 줄들이 뻗어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 마치 시각 예술작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종이컵에 매달린 줄들 사이를 오가며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행위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우아한 춤을 추는 듯 보였는데, 말 그대로 “현들의 향연”이라 할 만 했다. 또한 2008년 메시앙 100주년

기념 음악회는 공연이 끝난 후 로비와 공연장 밖에서 위고 베를랭드의 “설치미술과 비디오를 통한 메시앙 음악의 시각화”가 상연되었다. 프랑스의 디지털 아티스트 베를랭드가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생성시킨 시각 이미지들의 그 눈부신 영상들이 하늘거리는 실크스크린 위로 비쳐질 때면, 마치 메시앙 음악의 우주적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듯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연출되었다.

이처럼 아르스 노바 시리즈는 주제나 선곡, 연주 같은 음악적 내용만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실한 프로그램 책자와 프리콘서트토크는 물론이고, 전시회, 퍼포먼스, 설치예술 같은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을 통해, 현대음악이 단지 음악회장 안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소리 체험으로도 가능한 것임을 입증해보였다.

(4) 창작, 연주, 비평의 선순환 환경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클래식음악 연주회 레퍼토리는 특정 시대와 지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했다. 국내 교향악단의 연주 프로그램이나 외국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 곡목을 분석한 논문들에서도 나타나듯이, 20세기 중후반 이후 작곡된 음악의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²⁴⁾ 뿐만 아니라 국내 작곡가들의 신작들이 작곡협회 주최가 아닌 일반 음악회에서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물론 2001년 창단된 통영국제음악제 ‘TIMF양상블’을 비롯하여 현대음악과 창작음악 연주에 매진하는 몇몇 연주단체들이 꾸준히 활동을 해왔지만, 서울시향과 같은 교향악단 차원에서 현대음악 연주가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운

24) 신혜영, “국내 교향악단의 연주 프로그램 분석연구,” 석사 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1); 박소은, “외국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분석 연구 1945년~2008년,” 석사 학위 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2010) 참조.

영된 것은 처음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과 연주력이라는 최상의 콘텐츠를 확보한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는 서울시향이라는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음악회의 기획과 홍보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창작곡을 지속적으로 위촉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기성 작곡가들보다 가능한 젊은 작곡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현재까지 아르스 노바에서 위촉하여 세계 초연한 여덟 곡들(아래 <표 2> 참조) 가운데 백병동을 제외하고는 30대와 40대 초중반 작곡가들의 신작이었다. 물론 모든 위촉 작들이 성공적이어서 곧바로 레퍼토리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창작곡들이 단순히 작곡가들에게 한 번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주될 수 있게 만든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표 2> 아르스 노바의 위촉작들

초연 일시	작곡가 (출생년도)	작 품
2007.11.06	최우정 (1967)	첼로와 현을 위한 실내협주곡 <러브 송>
2008.06.15	정일련 (1964)	앙상블을 위한 <글루트>
2008.10.25	홍성지 (1973)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프리즈마틱>
2009.10.24	임종우 (1966)	앙상블과 전자음악을 위한 <음성의 실루엣>
2010.04.06	박선영 (1974)	소규모 앙상블을 위한 <전조의 화성적 연습곡>
2010.10.16	김희라 (1976)	앙상블을 위한 <결>
2011.04.20	김택수 (1980)	독주 하프시코드와 앙상블을 위한 운동학 <게레데>
2011.10.09	백병동 (1936)	<실내 협주곡 II> (개정판)

올해부터는 국내 작곡가 뿐 아니라 해외 저명 작곡가들의 신작에도 공동 위촉의 형태로 참여했는데, 이 또한 서울시향이 세계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혀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2011년 가을 소개된 파스칼 뒤사팽의 <롱 아일랜드의 아침>(2011)에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페터 외트비시와 트리스탕 뮐라이의 작품이 서울 시향에 의해 아시아 초연될 예정이다.²⁵⁾

또한 특정 음악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 뿐 아니라 리뷰나 평론을 통한 피드백도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언론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데다, 기성 언론 지면에서 비평의 자리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까지 아르스 노바에 대한 리뷰는 비교적 꾸준히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 <표 3> 참조). 다른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지 않아도 시향 매거진에서 꾸준히 리뷰가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이 음악회가 좀 더 폭넓게 청중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반응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부 음악 칼럼니스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음악회에 참석한 관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표 3>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주요 공연 리뷰들

일 시	글쓴이	제 목	지 면
06.4.8	노승림 객원기자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	연합뉴스
06.5.3	왕치선 (평론가)	청중 배려해 선곡·해설. 시향연주는 아쉬움 남아	한겨레
06.6.1	서경식(도쿄계이 자이대 교수)	누나의 방.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1>을 보고	SPO 6 (2006.6)
06.6.1	박용완 기자	편식을 안해야 키가 자란다. 서울시향의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I’ (콘서트 스케치)	객석 (2006/6)
06.8.30	이미경 (음악학자)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1 (마스터클래스 어린이 참가자 후기 포함)	오늘의 작곡가, 오늘의 작품 5
06.11.1	박용완 기자	서울시향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II’ 나의 잔혹 코미디 감상문	객석 (2006/11)

25) 뮐라이의 피아노 협주곡(2012년 5월 세계 초연 예정)은 무지카 비바 페스티벌, 뉴욕 필하모니, 콘세르헤보우 오케스트라와 서울시향의 공동 위촉작이며, 2011년 1월 세계 초연된 페터 외트비시의 <첼로 콘체르토 그로소>는 베를린 필하모니, 톤할레 취리히, 베르겐 오케스트라, 토론토 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의 공동 위촉작이다.

07.4.20	김원철 (칼럼리스트)	리게티라는 이름으로 차린 현대음악의 성찬	SPO 17 (2007/5)
07.11.20	김원철	천 가지 빛깔의 비올라 소리	SPO 24 (2007/12)
08.7.1	왕치선 (평론가)	우리의 귀, 한층 젊어지다. 서울시향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이국의 색채	객석 (2008/7)
08.11.20	유영희 (작곡가)	메시앙을 기리며, 현대음악을 즐기며	SPO 36 (2008/12)
09.4.22	김성현 기자	고전(古典)의 분해...속살을 그대로 (실내악)	조선일보
09.4.25	오미환 기자	매혹적 기획·연주, 빈 객석은 아쉬워 (실내악)	한국일보
09.4.25	최은규 객원기자	현대음악에 대한 편견 버려	연합뉴스
09.4.28	황성호 (작곡가)	다채로운 빛과 색깔이 된 소리들, 음악의 가능성·경이로움이란...	한국일보
10.4.15	최은규 객원기자	東-西, 음악으로 만나다	연합뉴스
10.4.20	장병욱 기자	전통악기 생활의 현대적 선율에 압도	한국일보
10.4.20	송주호 (칼럼리스트)	서로 혹은 자신을 보는 여러 시각들 (실내악)	SPO 53 (2010/5)
10.5.20	송주호	동서, 그 하나된 이름 (관현악)	SPO 54 (2010/6)
11.4.23	최은규 객원기자	음악계의 밝은 미래 보여준 무대	연합뉴스
11.6.20	송주호	오늘날의 음악으로 지난날의 파토스를 즐기다	SPO 65 (2011/6)
11.10.11	이석렬 (평론가)	서울시향, 현대음악의 진수 보여줬다	동아일보

아르스 노바 시리즈는 현대음악을 주 레퍼토리로 하는 ‘연주회’이지만, 당대의 음악을 다루는 만큼 새로운 ‘창작’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창작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생각해볼 것을 촉구한다. 이 연주회에서 다뤄지는 많은 작품들이 최근 20년간 창작된 것들이며, 그 중 대다수는 한국 청중들에게 처음 소개되는 음악들이었다. 지금까지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질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예술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평’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 아직은 부분적으로밖에 이뤄지지 않는 창작-연주-비평의 선순환 환경이 좀 더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말이다.

4.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의 의미

그렇다면 아르스 노바 시리즈가 한국 음악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우선, 현대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천년 이후 쏟아져 나오는 당대의 작품들을 특정한 이슈 속에 배치하여 소개함으로써, 그 흐름과 맥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프리즘 역할을 했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업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을 동시대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과 유튜브 같은 공유 사이트를 통해 현대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 음악의 실제 연주를 듣는 것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히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20세기 고전과 21세기 동시대 작품들은 창작의 자극제로서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애호가들에게는 세계음악계의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 현대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했다. 국내 첫 도입된 상임작곡가 제도를 진은숙은 한국 현대음악의 지형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 것이다.

둘째, 현대음악은 소수의 제한된 관객들끼리 자폐적으로 교류하는 음악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대음악 연주를 음악회문화의 하나로 정착 시키며, 현대음악을 특정 스타일의 어려운 무엇이 아닌, ‘오늘날의 음악’으로 변모시켰다. 물론 최근 10여 년간 현대음악 연주에 매진한 여러 음악 단체들 혹은 연주자들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지만,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는 현존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적절하게 구성함으로써, 현대음악은 마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야만 할 것 같다는 편견을 넘어 소리에 직접 감응할 수 있는 것임을 느끼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뉴욕 음악계의 언더/오버 신을 넘나드는 존 조른의 작품들, 사정상 연주 되진 못했으나 아방가르드 록 뮤지션 프랭크 자파의 음악,

음악코미디의 영역을 개척한 피터 시켈레의 시도 등을 포함시켜 현대 음악 레퍼토리의 고정된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미 고전이 된 현대음악의 걸작들은 물론이고 옛 음악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구성한 곡들, 젊은 작곡가들의 생기 넘치는 최신작들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현대음악의 세계를 흥미진진한 분야로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감상후기들을 보면,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이 느낀 감응과 인상을 묘사하는 글들이 많다. 그렇게 하여 현대음악을 즐기는 청중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리라.

셋째,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시리즈는 한국 작곡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클래식 청중들에게 현대음악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음악회의 주체인 서울시향에게도 질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사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이 시리즈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6년간 130여 곡에 이르는 현대 곡들을, 그것도 국내에서는 처음 연주되는 100여 곡들을 소화해 내면서, 이들은 엄청난 양의 레퍼토리를 통해 현대음악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키울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라는 근대적 제도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새로운 레퍼토리의 확보다. 정기연주회와는 별도로 6년간 진행된 현대음악 레퍼토리들은 그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로 발돋움할 초석이 되었음에 틀림없다.²⁶⁾ 2010년, 2011년 서울시향의 유럽 투어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무대에서 아시아 오케스트라로서의 정체성을

26) 2011년 8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초청된 서울시향은 진은숙의 <슈> 연주로 특히 주목받았는데, 그것이 지난 6년 간 아르스 노바 연주를 통해 쌓은 성과라는 지적은 유의미하다. 전지현, “서울시향의 경쟁력 비결은 현대음악,” 『매일경제신문』 2011년 10월 5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43710> (2011. 10. 15.). 독일 음악학자 프랑크 하더스-부테노브 역시 서울시향 유럽 투어의 성공은 아르스 노바 시리즈에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한다. Frank Harges-Wuthenow, “Ars Nova - à sa manière. Unsuok Chins bahnbrechende Konzertreihe beim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214.

위해서는 고전에 대한 색다른 해석도 필요하지만 독자적인 레퍼토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창작곡을 위촉하고 초연하는 일은 단지 한국의 창작음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서울시향이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외국 투어를 나갔을 때 서울시향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혹은 서울시향의 해석이 가장 흥미로운 그런 레퍼토리를 이제는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서울시향의 예술 감독으로 부임한 정명훈이 진은숙을 상임작곡가로 함께 끌어들이는 것은,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주춧돌 하나를 놓는 일이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취향과 흐름은 개별 작곡가나 연주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음악회를 둘러싼 전반적인 생태 환경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조직될 때, 기본에 충실하여 잘 준비된 음악회가 그에 합당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록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상회하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때, 한국의 음악문화는 비로소 건강한 자기 발전의 토양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듯, 작지만 의미 있는 씨앗이다. 이 시리즈가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리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목소리와 얼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음악계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은 단지 한 개인, 한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추동되는 공통의 경험, 취향, 가치 같은 것들이 공유되고 정착됨으로써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5. 나가며

음악가와 작품처럼 음악회 또한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서 자신의 고유

한 역사와 구조를 갖는다. 또한 그것은 수행되는 공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로소 고유의 의미를 획득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서울시향의 현대음악 연주회 시리즈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는 한국 현대음악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인다. 그 변화가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무엇도 아니지만, 연구자로서 그 내용과 의미를 정리해두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 음악계에는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은 별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대음악 영역만 보더라도 그동안 행해졌던 여러 페스티벌과 연주단체들의 활동은 자료 집 형태로 정리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수준이다. 1969년 시작된 “범음악제”(Pan Music Festival)는 물론이고 “대구국제현대음악제”도 벌써 20년간 지속되었다. 2001년 출범한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하여 당대의 음악에 비중을 두는 음악제나 현대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앙상블도 많이 생겨나 꾸준히 자기 영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TIMF 앙상블은 10주년을 맞이했고, 2002년 시작된 “화음(畫音)프로젝트”의 창작곡 발표도 Opus.100을 넘어서며 기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일이 그 당사자들의 몫은 아닐 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주목하고 해석해내는 것은 연구자의 일이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것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할 때 비로소 하나의 역사가 되어가는 것 아닐까. 이런 점에서 한국 음악문화에 대한 비평적 연구, 현장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김규현.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0년사』. 예술, 2010.
- 김정옥. “국내 하우스콘서트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기획 전공) 석사 학위 논문, 2010.
- 김지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목록을 통한 작곡자와 장르별 작품 연주상황에 대한 분석.” 『음악과 민족』 22 (2002), 135-158.
- 박소은. “외국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분석 연구 1945년~2008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 전공) 석사 학위 논문, 2009.
- 박용완. “편식을 안해야 키가 자란다. 서울시향의 ‘진은숙의 아르스 노바 1’.” 『객석』 (2006/6), 68-69.
- 박혜란. “국립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악학과 석사 학위 논문, 1975.
- 신혜영. “국내 교향악단의 연주 프로그램 분석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1.
-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우리양악 100년』. 현암사, 2001.
- 이미경.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의 Ars Nova 1.” 『오늘의 작곡가 오늘의 작품』 5 (2006), 83-89.
- 정구성. “공공 교향악단의 운영 개선 방향 - KBS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관광문화학과 (공연행정 전공) 석사 학위 논문, 2011.
- 정준호. “200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서울시향 공연 결산.” 『SPO』 12 (2006/12), 12-16.
- Doctor, Jenny & Wright, David. *The Proms - A New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2007.

- Harders-Wuthenow, Frank. “Ars Nova - à sa manière. Unsuk Chins bahnbrechende Konzertreihe beim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Stefan Drees (hsrg.). *Im Spiegel der Zeit. Die Komponisten Unsuk Chin*. Mainz: Schott, 2011, 205-214.
- Salmen, Walter. *Das Konzert. Eine Kulturgeschichte*. München: Beck, 1988.
- Tröndle, Martin (ed.). *Das Konzert. Neue Aufführungskonzepte für eine klassische Form*. Bielefeld: transcript, 2009.

신문

- 백승찬. “현대음악, 젊은 작곡가들이 만들어가야.” 『경향신문』 2011년 5월 2일.
- 오미환. “서울시향 상임작곡가 진은숙 ‘작품연주보단 한국음악 발전에 매진’.” 『한국일보』 2006년 1월 9일.
- 장병욱. “佛 작곡가 뒤사평, 한국 음악계에 메시지 던지다.” 『한국일보』 2011년 10월 11일.
- 전지현. “서울시향의 경쟁력 비결은 현대음악.” 『매일경제신문』 2011년 10월 5일.

Abstract

Redesigning the Future of Korean Contemporary Music: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Concert Series “Ars Nova”

by Unsuk Chin and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Lee, Heekyung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the oldest and most famous orchestra of Korea, adopted the composer-in-residence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hen it was re-launched as an incorporated foundation in 2005. Unsuk Chin, as its first composer-in-residence, has directed the contemporary music concert series, titled “Ars Nova,” since 2006. The concert programs encompass various topics every season, such as “Early & New,” “Different Beethoven,” “Viola, viola,” “Couleurs exotiques,” “America,” “East and West,” “Fairytails.” She also gave regular master classes for young composers, organizing workshops, lectures and additional artistic activities such as an installation “Beethoven’s room,” the performance of the ensemble ‘Stringraphy,’ and the presentation of Hugo Verlinde’s digital art.

During the past six years, this concert series extended the classic music repertoires in Korea to the diverse trends of th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y music, offering well-organized and innovative programs to Korean audience. More importantly, it contributed to inspire composers in their creations, and to raise the musical competence of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which finds its own way into the world standard orchestra.

As a case study for the current Korean music culture, this essay traces and assesses the significance of the “Ars Nova,” hoping to encourage further critical reviews and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music.

Keywords: Unsuk Chin, Korean Contemporary Music,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SPO), Concert Scene, Korean Young Composers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0월 28일	2011년 11월 5일~23일	2011년 12월 1일